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8. 2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러시아, 인도 지도층 대상 자폭테러 모의 ISIS 조직원 체포

- 8.23 러시아 연방보안국(FSB)은 지난 4~6월 중 인도 지도층 대상 자살폭탄테러를 모의한 중앙아시아 출신 ISIS 조직원*을 체포하였으며, 同인은 러시아를 경유하여 인도에 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

* 올해 튀르키예에서 ISIS 수뇌부에 의해 포섭,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촉

미주

○ UN, '제5차 국제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' 기념

- 8.21 UN 「안토니우 구테흐스」 사무총장은 '제5차 국제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'을 기념, 테러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'희생자와 생존자의 목소리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보장하겠다'고 언급

* UN은 '17년부터 8월 21일을 '국제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'로 제정해 매년 기념 중

○ 美 대통령, 내달 '반증오범죄 연대회의' 개최

- 8.20 美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9.15 백악관에서 「바이든」 대통령의 '반증오 연대회의'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, 이는 “민주주의와 공공 안전에 대한 증오폭력의 유해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것”이라고 발표

* 同 회의는 최근 인종차별에 기반한 무차별적 증오범죄 근절이 목적이라고 부언

○ 美, 아프간 동결 자산 해제 협상 계속 추진

- 8.22 언론은 美 행정부가 아프간 중앙은행의 해외 동결 자산(약 70억 달러) 해제 협상을 계속 추진 중이며, 이는 해당국 내 인도주의적 위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

* 해외 동결 자산을 스위스 소재 신탁 기금으로 보내는 계획도 검토 중

아 · 태평양

○ 경찰청, 경찰특공대 추가 설치 추진

- 8.21 경찰청은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내년에 전국 시도 경찰청에 특공대를 확대 설치하여 권역별 중심특공대*를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

*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, 서울·세종·대구·부산·광주를 ‘중심특공대’로 지정

○ 태국, 남부지역 연쇄 폭탄테러·방화로 7명 부상

- 8.17 언론은 16일 밤 태국 남부 3개州*(빠따니·나라티왓·알라)의 편의점·주유소 등 20여 곳에서 폭탄테러·화재가 발생해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,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叛軍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

* ‘딤 사우스’로 불리며 이슬람 반군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테러와 무장투쟁 지속

중 동

○ 이라크, 대테러작전 전개 ISIS 조직원 6명 사살

- 8.21 이라크 대테러국(ICS)은 지난 20일 살라알딘州 북부 함린산맥 지역에서 연방정보조사국, 공군과 합동 대테러작전을 전개, 「알 카타니」 지역 총책을 포함한 ISIS 조직원 6명을 사살했다고 발표

* 「알 카타니」는 同 지역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시민과 보안軍 암살 및 납치를 주도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, 알샤바브 소행 호텔 테러·인질극 발생

- 8.19 소말리아 모가디슈市 소재 하얏트호텔*에 알샤바브 대원들이 중화기를 난사하고 손님 등을 인질로 잡았으나 30시간 만에 軍 당국에 제압되었으며,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

* 3층 높이 건물로 평소 정부 고위 공직자와 의원, 외국인 등이 자주 방문

아프간, 카불 국제공항 겨냥 총기난사·자살폭탄 복합 테러

- '21.8.26, 17:50경 미상 무장 괴한들이 아프간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입구에서 총기난사 및 자살폭탄테러를 자행, 182명 사망(미군 13명 및 현지인 169명)·150명 부상



<사건 현장>

- 同 테러는 아프간에서 탈레반 再집권(8.15) 이후 미군 전면 철군(8.31限)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수많은 외국인과 현지인들이 해외 대피차 카불 공항으로 급박하게 몰려든 가운데 발생하여 다수 사상자 초래
- 사건 직후, 국제사회는 ISIS-K(ISIS-호라산 지부)를 배후로 지목하며, 同 테러조직이 이번 공격을 △美軍 철수 압박 △탈레반과의 경쟁 우위 선점 등의 의도를 지니고 자행한 것으로 평가
- 美國은 사건 이후 ISIS-K 대상 2회의 드론 공습을 단행하였으며, “테러범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”이라며 대테러작전 지속을 선언
* 8.28 낭가하르주 카불공항 테러 기획 간부 제거, 8.29 카불공항 인근 자폭테러범 차량 타격
- 한편, 탈레반은 규탄성명을 내고 ISIS-K 조직원 6명을 체포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한편, 美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‘주권 침해’라며 반발

테러 상식

< ISIS-호라산 지부(ISIS-K) >

- (목표)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* 이란어(페르시아語)로 ‘일출 지역’의 의미로 과거 페르시아제국의 동부 지역을 구성 하던 현재의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 지역을 통칭
- (테러단체 지정) UN('19.5), 미국('16.1), 호주('17.11), 인도('18.6)
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軍警 및 정부청사·다중운집장소 대상 자폭테러,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
- (생성배경) ‘아프간 탈레반’·‘파키스탄 탈레반’ 조직에서 소외된 중견 간부들(특히, 파키스탄 부족 자치지역 출신)이 이탈, ISIS에 충성맹세 후 결성
- (주요테러) ('20.8월) 낭가하르주 교도소 습격(사망 29), 수감 조직원 270명 탈옥지원 ('21.8월) 카불 공항·인근 호텔 자폭테러(사망 182·부상 200) ('21.10월) 칸다하르주 시아파 모스크 자폭테러(사망 47·부상 70)